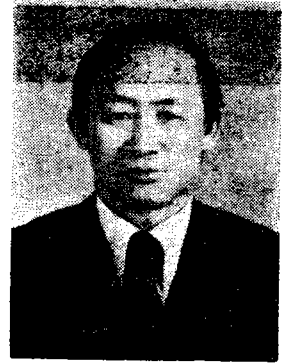


農業土木人과 물

李 熙 榮*



農業土木技術者라 하면 물을 合理的으로 料理하는 職業이라고 하여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아주 精確함을 實感케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農業土木技術者가 물 利用의 尊貴性을 얼마나 認識하고 있느냐 하면 정말 의문이 간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학대가 되겠다. 또한 農業土木技術者라 하면 灌溉技術者이고 農地擴大, 農地造成의 技術者이다. 이것 또한 農地擴大나 農地造成도 물을 前提로 하지 않는 事業은 있을 수 없다. 물 管理와 組織을 다루는 技術者는 一流 Engineer가 아니라도 되는 것처럼 소홀한 認識으로 기피하고 輕視하고 있음은 참으로 한심스러우며 농업토목의 앞날이 기술자로 정립과 발전에 저정스럽다.

灌溉事業에서도 開發과 물의 合理的 利用의 2個 要素로 이루어져 있다. 前者는 主로 工學的인 手段으로 解決할 수 있는 問題가 많고 水文, 地質, 水理, 設計, 施工等の 専門적인 知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後者는 工學的인 技術에 農學的, 社會, 人文科學的 知識의 綜合化가 必要하다. 이들 2個要素의 有機的인 結合과 各要素中 專門分野의 綜合的인 連結이 灌溉事業을 成功的으로 이끌 수 있는 近代 農業土木人의 前提條件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灌溉事業은 開發의 要素에 단 熱을 올릴 뿐 實質的으로 물의 技術者가 해야 할 물의 利用管理에 대하여는 지극히 度外視하고 있는 現實이다. 이것은 마치 자기의 所管任務가 아닌 듯이 착각하여 왔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自己輕視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開發後 農業을 다루는 機構는 灌溉技術을 갖지 못하고 認識이 不足하여 물이 貴重한 生産材로서 다른 農業資材와 같이 有效하게 利

用해야 한다는 認識이 缺乏되어 있다. 따라서 農業 開發은 種子, 肥料의 配分, 營農은 물과 關係가 있는 것이며 물과 이들의 資材와는 全然別個로, 管理하기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되어 왔다. 이것은 물의 技術자가 물을 버렸기 때문에 發生하는 必然的인 現象이다. 그러므로 開發에 熱이 있으면 그 以上으로 물의 利用에도 참여하여 물이 고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토목기술자가 자기 학내를 한다고 지적인바와 같이 專門職을 輕視하며 輕視當하고 있다. 研究機關에서 熱心이 研究하는 사람, 오랫동안 企劃, 調查, 設計, 施工面 등에서 技術에 精通한 特別한 技術을 가진 사람들과 海外에서 이분야에 研修한 사람, 海外에서 이분야에 일한 사람들이 이속에 包含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優秀하고 有能한 사람들이 농업토목을 因緣으로 集結하여 이를 俾 받들고 있으나 반드시 實力을 正當하게 評價받고 있는 것 같이 않은 듯 하다.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行政機構는 技術者를 重要視하지 않는 組織이며 技術者의 集團인 農業土木人도 技術者를 貴重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行政上的 地位가 모든 것에 先行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大學에서도 마찬가지다. 業績보다는 이름 있는 大學의 教授라고 하는 것이 優先하고 있는 例가 많다. 바꿔 말하면 行政機關에서 利用하고 있는 大學은 알맹이 보다는 간판족이라고 하는 것이 過言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물의 技術者는 들의 貴重性을 다시 認識하고 고마움을 알아야 하며 서로 돕고 아끼고 격려하는데 우리 물의 技術者는 굳건한 位置와 發展이 있을 것이다.

* 서울産業大學